

학생들의 끼 발산... 문화 예술가들과 소통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콘서트 '성료' 소리꾼 박운중 등 예술인 참여 응원

광주푸른꿈창작학교가 '땀에 흠뻑! 흥에 흠뻑! 지역과 흠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힐링콘서트'를 최근 개최했다.

푸른꿈창작학교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지역 문화 예술가들과의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특히 댄스팀 A.N.F, 비보이팀 에스티브레이크즈, 플루트 4중주 슈멜츠, 소리꾼 박운중, 고수 이명식, 보컬 이나라, 전현지(선배 수료생)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 문화 예술계를 흥보하고 성장시키고자 재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이계양 교장은 "이번 '힐링콘서트'는 광주푸른꿈창작학교의 교육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축제를 구성했다"며 "또 남구기후위기네트워



광주푸른꿈창작학교가 최근 개최한 '힐링콘서트' 장면.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제공>

크'와의 연계를 통해 We기후토크, 슬기로운자원순환생활의 부스를 중심으로 전교생이 각 부스마다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광주YMCA가 지

난 2020년 9월부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LTI(인턴십), 크리에이티브, 명상, 자전기, 생명평화, NGO와 사회참여, 이동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개교 70주년 '全南大學校 名譽教授會誌' 창간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회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회지 '全南大學校 名譽教授會誌'를 창간했다.

전남대 명예교수회(회장 박돈희 명예교수)가 최근 발간한 365쪽 분량의 회지 창간호에는 21면에 걸친 화보와 함께 7면의 논문과 5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26면의 명예교수 출간도서가 소개됐으며, 7면의 시, 수필 그리고 기행문 등을 담고 있다.

또 1966년부터 시작된 명예교수회의 역사와 거점국립대학교 명예교수연합회 창립이야기가 부록으로 실렸다.

박돈희 회장은 "명예교수회지 창간호는 새로운



시대와 명예교수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회원들의 주옥같은 글과 사진들은 전남대학교의 또다른 역사의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명예교수회는 2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유명인사 초청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과 회원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키르기스스탄 문화부와 디지털시스템 구축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국립박물관의 문화자원 디지털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돕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체육청년정책부(이하 문화부, 장관 자만쿨로프 아자마트)가 키르기스스탄 디지털통합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지난 15일 체결했다. <사진>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ACC가 키르기스스탄 문화부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ACC는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소속 주요 박물관과 협력해 디지털 문화자원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유·무형 문화자원의 디지털화가 이행을 통한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및 창·제작, 정보기술(IT) 기반 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한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자원관리는 소련시스템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전남직접사-무등산 동부사무소 'ESG경영 실천' 협약

대한직접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탄소중립 및 인도주의 활동지원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국립공원 ESG 경영을 위한 탄소중립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재난 시 구호활동 참여 ▲기부문화 확산(직접사 후원참여 안내, 모금함 비치, 공간기부 등)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활동 참여 등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직접사와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문제와 탄소중립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양 기관의 양질의 성장을 통해 우수한 ESG 경영 사무소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한직접사 광주전남지사 김동수 사무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과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고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미남당(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 45 똑똑구조대(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도파자락 휘날리며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3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55 닥터 365
14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5		00 KBS 뉴스타임 10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16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연중 라이브(재)	55 5 MBC 뉴스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
18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KBC뉴스와이드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황금가면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2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미남당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21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2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40 접속! 무비월드(재)
23	10 역사저널 그날(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통합뉴스룸 ET(재)	10 스포츠 매거진 50 포비트앨리 3	5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우리집 유치원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05:30 클래스 e	10:10 한국의 들레길(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05:50 한국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1:20 세계테마기행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윌리엄
07:15 우당탕탕 우한안전단	12:00 EBS 뉴스 12	17:45 출동! 슈퍼왕스(재)
07:30 엄마 까투리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07:45 띠띠뽀 띠띠뽀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8:45 최고!나 호기심딱지
08:00 당동당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00 미라클러스:레이디디비그와 블랙켓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45 비닷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들레길
08:35 출동! 슈퍼왕스	15:35 안전채널e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15:40 지식채널e(재)	20:40 세계테마기행
09:05 그린조기 구조대(재)	15:50 직업탐구 비밀일입니다2	21:30 한국기행
09:20 꼬마버스 타요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특집 다큐-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6:15 페파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5일(음 6월 27일 己卯)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상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48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다가 잡힐 것이다. 60년생 본인의 의도하였던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정황이다. 7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84년생 영문도 모른 채 함께하게 될 것이다. 96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78	42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응대해야 하느니라. 54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66년생 불가피하던 적국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78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게 된다. 90년생 농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02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09, 86	37년생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49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61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73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85년생 굳은 마음가짐이 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97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34, 89	44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할 수밖에 없다. 56년생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68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80년생 구색을 맞추려다 보면 실기하고야 말 것이다. 92년생 방비책을 튼튼히 해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04년생 예방에 철저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58	39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정을 이룬다. 51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63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5년생 지금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87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9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4, 85	33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관찰할 일이다. 45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금히 터지리라. 57년생 현상으로는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69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93년생 참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0, 70	40년생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52년생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리라. 64년생 핵심 정곡을 찌러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6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시키게 된다. 88년생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00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2	41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53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65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우 불편해질 수도 있다. 77년생 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89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01년생 기교가 첨가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28, 57